

전남 중부권

# 영암 '한옥 건축박람회' 올해부터 격상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한옥 건축 박람회'가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로 새롭게 바꾸고 한옥 열풍을 여는 새로운 장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한옥건축박람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용준 전남대 교수)는 최근 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기획·운영 분과를 비롯한 총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는 박람회명칭 변경에 따라 행사의 격상을 높

이고,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한옥관련 연구들을 박람회에 접목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옥에 관심 있는 예비 건축주들에게 행복마을의 성공사례를 들려주고, 한옥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박람회장 인근 상대포역사공원, 구립한옥마을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높은 시너지효과를 나타내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2번째 열리는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가 명실상부 한옥의 발전상과 함께 한옥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영암군 군서면 일원에서 개최된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 청정갯벌서 물고기와 숨바꼭질



지난 1일 장흥군 대덕읍 신리 앞바다 갯벌에서 열린 개막이 체험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물고기 등을 잡고 있다. <장흥군 제공>

## 장흥군, 18일 신리 갯벌서 '개막이 행사'

장흥에서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개막이 행사가 열린다. 장흥군은 대덕읍 신리 앞바다 갯벌에서 오는 18일 오후 3시에 3시간 동안 맨손으로 물고기잡기와 참꼬막 잡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개막이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바다의 갯벌위에 그물을 쳐 놓은 후 밀물 때 바닷물을 따라 들어오는 물고

기 때를 썰물 때 그물에 갇히도록 해 잡는 전통 고기잡이 방법이다. 특히 이곳은 우리나라 해안 중에서 오염되지 않은 바다와 갯벌에서만 발견되는 참꼬막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유일한 곳이다. 청정해역의 살아 숨쉬는 갯벌위에서 펼쳐지는 물고기와의 숨바꼭질은 폭염과 스트레스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체험과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승어가 대부분이며 돌·낙지·게·장어 등을 잡을 수 있다. 신리 개막이 체험행사는 다른 지역과 달리 물고기를 인위적으로 방사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발견되는 참꼬막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고기를 잡지 못한 사람을 위해 자연산 참꼬막 잡기 체험을 덤으로 즐길 수 있도록 꼬막어장도 개방

해 체험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또 개막이 체험행사 후에 자신이 직접 잡은 바닷고기를 즉석에서 회로 맛볼 수도 있다. 개막이 체험행사 입장료는 성인 8000원, 10세 이하의 어린이와 70세 이상 노인은 5000원이다. 반드시 장화와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투망이나 어구 등은 일체 사용할 수 없다. 문의(061-860-0603)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2700그루 무궁화 한자리에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10~12일 '무궁화 꽃 잔치'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제67회 광복절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나주 연구소내 메타세콰이어길에서 '나라꽃 무궁화 꽃 잔치'를 연다. 이번 무궁화 꽃 잔치에서는 올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심은 117종 2700그루의 다양한 꽃나무를 한자리에 볼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시·군 우수 무궁화 분화 공모에 나온 출품작 186점 중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개인작품 3점과 단체작품 3점도 함께 전시된다. 축제는 10일 오후 2시 개막식에 이어 상설체험(압화 만들기·나무연필

만들기·나무 퍼즐만들기·무궁화 차시식 등)과 이벤트(얼음놀이·정신건강 상담·숲해설 프로그램 등)로 구성됐다. 또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행사도 무궁화 차·떡 시식, 페이스 페인팅, 숲해설 프로그램, 숲속 도서관, 글짓기 등 무궁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무궁화꽃 바로알기 관련 역사 자료와 무궁화 재배·관리 요령, 세계 각국 나라꽃의 사진 전시 등도 선보인다. 연구소는 무궁화 묘목 1500그루를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에게 무료로 나눠 줄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



29일 까지 열리는 '2012 대한민국 산림 박람회'와 연계시켜 관람객 유치 및 사진 홍보 효과를 높이며, 무궁화 우수 유전자원 및 분화 확보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최근 열린 '제22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시·군 품평회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json@

# 소통의 '나주 농어업회의소'

## 7월 17개 읍·면·동 순회 의견청취

전국 최초 민간의 농정개혁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나주시 농어업회의소가 지역 순회로 농어업인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농어업인의 대의기관으로서 농정혁신에 나섰다.

농어업회의소는 7월 한달간 나주시 지역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45건의 의견을 청취했다. 순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제해피해 조사기준 완화 ▲산간지역 멧돼지

출현에 따른 신속한 야생조수 포획제고 개선 ▲식품가공업 유치 등을 통한 농촌거주 노인 일자리 마련 ▲수입농산물 물량 조절 ▲농어업회의소의 역할 등을 건의했다. 농어업회의소는 수렴된 의견 중 분과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회의소 자체 처리 8건, 나주시 농정에 30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중앙부처에 7건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나주시가 전국 최초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나주시 농어업회

의소가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민간기구로서 농정개혁 표준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주시도 농어업회의소를 농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회의소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억원을 지원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json@

# 전 북



# 청정식품 먹고 k-pop 보고

## 남원시 내달 7~9일 '허브&블랙푸드 페스티벌'

남원시는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지리산 허브와 포도·흑패지의 만남'이란 주제로 운봉읍을 지리산허브밸리 일원에서 '허브&블랙푸드(포도+흑패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남원 허브 향토산업추진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허브&블랙푸드 페스티벌'은 허브 향토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전략산업인 허브와 지리산 청정 먹거리를 접목시켜 '웰빙 도시 건강한 남원'을 널리 알리고자 8개분야 26개종목 41개행사로 다채롭게 열린다. 주요 행사로는 k-pop 및 스타킹 등 방송매체 출연진이 참가하는 다채로

운 공연행사와 남원의 허브와 블랙푸드 산업을 한눈으로 보고, 사고, 먹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 식품관, 제품관, 체험관, 품평회, 경연대회 등이 운영된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남원 허브축제'는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남원 허브산업의 메인시설인 '허브 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 테라피관'을 건립하고 2015년 재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허브 복합토피아관은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실시 설계중이며, 11월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 '서남권 발전' 시·군 뭉쳤다

## 정읍-고창-부안 인사교류...관광자원 공동개발

전북 서남권 3개 시·군이 인사교류를 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은 상생발전과 지방행정의 협조체계 구축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해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8월 1일자로 고창군은 정읍시로 2명(지방세무 6급·지방행정 7급), 부안군으로 1명(지방시설 8급) 총 3명을 파견했다. 또한 정읍시 2명(지방행정 6급·지방농업 7급), 부안군 1명(지방세무 8급)이 고창군으로 파견 발령됐다.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은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해 2011년 3월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광역행정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서남권 시·군이 공동으로 연계 협력해 광



이강수 고창군수가 정읍시와 부안군에서 새로 전입해온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고창군 제공>

역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남권 3개 시·군은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관광자원 공동개발과 주민 편의를 위한 광역화장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 기자 knews@

# 단 신

## 군산보건소, 27일부터 비만교실 운영

군산시는 비만으로 고생하는 시민을 위해 '비만 탈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군산시보건소는 라인댄스와 헬스트레이닝을 활용한 비만퇴치 프로그램을 27일부터 11월 16

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시 보건소는 먼저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체지방 측정을 통해 수강생을 선정할 방침이며, 수강비는 무료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정읍 남고서원 초등생 '방학 예절캠프'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남고서원은 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간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제14기 여름방학 예절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예절캠프는 전통예절, 인성교육, 서예, 기초한자, 생활화분 체험, 우드클레이 체험, 레크레이션, 다도예절 등 다양한 프

그램으로 운영된다. 남고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자 일제 이상선생이 후진을 양성하던 곳이다. 남고학당 예절교육은 지난 2004년 개강 이래 2011년까지 13기 284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고창 상하~구시포 4차선 도로 전면개통

고창군 상하면 소재지에서 구시포 해수욕장을 잇는 4.5km 구간이 7일 전면 개통된다. 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07년부터 255억원을 들여 도로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이 구간의 2차로를 4차로

로 확장해 개통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도로 개통으로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매년 2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구시포 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뱀사골 피서객 구한 광주 경찰관

## 휴가중 벌에 쏘인 피서객 응급조치

남원시 산내면 뱀사골로 여름휴가를 온 한 경찰관이 벌에 쏘인 피서객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생명을 구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근무하는 정영삼(39·광주광역시) 경사는 여름휴가를 맞아 최근 가족과 함께 지리산 뱀사골을 찾았다. 정 경사는 뱀사골에서 김주성(58·경남 김해시)씨가 왕벌에 쏘여 혼수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온몸이 오물로 뒤덮여 있어 누구 하나 선뜻 감시를 도우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정 경사는 감시를 업고 정

추환(남원시 도동동)씨 차량에 옮겨 40여분 거리인 남원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행스럽게도 김씨는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환자는 단 1분이라도 지체되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면서 "신속하게 대처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정영삼 경사는 "평소대로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감시가 완쾌돼 기쁘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 '고창황토배기' 유통평가 최우수

## 1억6천 추가 국비 지원

고창군이 글로벌 시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자 설립한 (주)고창황토배기 유통이 2011년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돼 국비 1억60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는다. 이번 평가는 농식품부에서 전국 12개 시·군 유통회사의 규모화·조직화·마케팅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이다. (주)고창 황토배기 유통은 최우수 평가로 당초 4억원에서 인센티브 1억6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자부담 포함 총 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 한편 지난 2008년 설립된 (주)고창 황토배기 유통은 꾸준한 매출성장으로 2011년 48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에는 고추 종합처리장을 활용해 고추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수매·가공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부안군 '모바일 흠피' 운영

부안군이 지역민과 활발한 소통을 위해 '모바일 흠피'를 구축,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군은 PC기반 홈페이지 콘텐츠를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을 높인 모바일 홈페이지의 정식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 모바일홈페이지는 스마트폰 기기에서 부안군 홈페이지를(www.buan.go.kr) 접속하면 자동으로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www.m.buan.go.kr로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 주요 콘텐츠로는 군정소식과 민원안내, 생활정보, 문화관광 등 40여개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부안 위도서 '한여름 음악캠프'

부안군 위도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한여름 음악캠프가 열려 피서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부안군 위도면에 따르면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제9회 위도 한여름 음악캠프'가 위도 해수욕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위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위도모 닷컴'이 주최하는

이번 음악캠프는 행사기간 동안 매일 저녁 8시30분부터 초대 가수 공연과 관광객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임채영 위도모 닷컴 대표는 "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위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음악캠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